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인문·체육계]

1.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가)는 국내에 만연한 외국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국내 토종 브랜드의 높은 품질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브랜드 제품이 월등할 것이라는 편견의 존재를 말하며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성을 지적한다. (나)는 아랍인의 특수한 식사문화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식사 시간, 과묵함을 요구해온 한국의 문화에서 볼 때 음식을 매개로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문화는 이질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성을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포용할 때, 그들과 호혜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와 (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의 안과 밖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외국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를 우열과 경쟁의 대상으로 놓고 국내 소비자의 오해를 성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선호 현상에 가려진 국내 브랜드의 가치를 강조한다. 반면 (나)는 아랍인의 식사문화를 예로 우열의 관점이 전제되기 쉬운 자문화 중심의 시선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에 따르면 한 문화는 상대적으로 타당한 배경을 가지며 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633자)

[문제 2]

제시문 (바)는 봉준호와 BTS가 확보한 세계적 명성이 한국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세계인은 이질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한국의 문화콘텐츠들을 문화 상대주의 시선에서 포용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과 문화콘텐츠업계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기획에 충실하고 있다. 글쓴이는 미국인의 기준에 따른 평가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바)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제로 한국적 개성에 입각한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면, 먼저 (다)의 ‘천하도’는 당대 한국인의 내면에 자리한 문화 상대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하도’는 한국 고유의 지도이면서도 세상의 중심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선을 비롯해 유교 사상, 도교 사상에 뿌리를 둔 가상 국가들의 위치를 볼 때, 중화사상의 구심력과 지리 지식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라)는 영어회화 열풍을 문화 상대주의가 발현된 또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글쓴이는 부유층 자녀들의 경쟁적인 영어회화 교육열과 일상 문화에 만연한 영어 오남용 풍토를 반대한다. 일체강점기 ‘조선어 말살’ 과정을 언급하며 한국어가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라)의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아낸 (바)의 논지와 맞닿아 있다.

(마)는 중국 불상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신라, 백제 불상의 고유한 개성을 설명한다. 중국 불상의 양식과 형식을 공부하고 돌아온 당시 화공들, 조각승들, 유학승들은 중국 불공으로 남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불상의 일부분은 중국 양식을 따랐지만 가장 중요한 얼굴은 백제인과 신라인의 특징을 담아 낸다. 일방적으로 외부 문화의 기준을 추종·수용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바)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무조건인 배제를 지양하고 외부 문화의 창조적 수용을 긍정한다는 면에서 (바)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1,043자)

2.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출제범위 포함)

본 논술고사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 출제되었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준석, 「문화사대주의에 가려진 토종 브랜드」, 『매경이코노미』 제1598호, 2011.3.23.
- (나) 강석, 『한국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동·아랍 문화코드 연구』, KOCCA, 2011, p.15.
- (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front>) ‘천하도’ 설명지문.
- (라) 박노해, 「영어회화」, 『노동의 새벽』, 느린걸음, 2014, p.51.
- (마) 김원룡, 「한국의 미」, 『국어 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5, pp.98-106에서 발췌.
- (바) 권상집, 「권상집 칼럼: 사대주의를 경계한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2020.2.13 온라인 기사.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김준석의 「문화사대주의에 가려진 토종 브랜드」라는 글에서 발췌한 글이다. 그는 외국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이를 문화 사대주의로 표현한다. 그는 국내 토종 브랜드의 높은 품질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브랜드 제품이 월등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동·아랍 문화코드 연구』에서 두 단락을 가져와 윤문한 것이다. 아랍인의 음식에 대한 태도와 식사 풍경은 생경한 문화적 함의를 가진다. 그들만의 에티켓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에도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제시문 (다)는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실린 ‘천하도’ 지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천하도’는 조선 중기 한국인의 내면에 자리한 문화 사대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 한국 고유의 지도이면서도 세상의 중심을 중국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선을 비롯한 가상 국가들이 주변부화된 것을 보면, 중화사상의 구심력과 당시 지리 지식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제시문 (라)는 박노해의 시 「영어회화」의 일부다. 문화 사대주의가 발현된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 영어회화 열풍을 묘사하고 있다. 박노해는 부유층 자녀들의 경쟁적인 영어회화 교육열과 일상 문화에 만연한 영어 오남용 풍토를 반대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인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잃어가는 세태를 비판한다.

제시문 (마)는 중국 불상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신라, 백제 불상의 고유한 개성을 설명하고 있다. 당대 불상들은 중국 불상의 양식과 형식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점이 발견된다. 이는 외부 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 혹은 배제를 넘어서는 창조적 전용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세계인이 문화 상대주의 시선에서 봉준호와 BTS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한 사실을 밝힌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과 문화콘텐츠업계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기획에 충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바)는 미국인의 기준에 따른 평가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문화 상대주의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제 1]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제 2]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하였다.